

Exploring the Cosmopolitanism of Manhae Han Yong-un

Eunyoung Kim*

Dongguk University

Abstract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the interface between Cosmopolitanism and Buddhism. It also aims to contribute to the diversity of research on global citizenship in the field of related religious studies. In this study, the modern religious landscape and the Cosmopolitanism of Manhae Han Yong-un are explored.

CONTENTS The following research is dealt with in order to look into Cosmopolitanism and the ideal of Manhae, which are the major themes of this study. First, various viewpoints on citizens were checked for a clear definition of Cosmopolitan, which is one of the main agendas of this study. Through this, it was confirmed that the main value of a Cosmopolitanism that surpassed the progressiveness of the concept of citizenship is peace. Second, I examined the reality faced by the various religions and the perception of reality that Joseon Buddhism itself had. Finally, the interface was analyzed between Manhae as a modern Buddhist practitioner and Cosmopolitanism.

RESULTS The conclusion of this study is as follows. If we can view Cosmopolitanism as a process of human progress, we find global citizenship in Korean modern tradition. In particular, Manhae's ideals and practices based on universal pacifism have aspects that are consistent with the goal of Cosmopolitanism.

KEY WORDS Manhae (亶海), Han Yong-un (韓龍雲), Cosmopolitanism, Peace, *Revitalizing Reformation of Chosun Buddhism* (朝鮮佛教維新論)

* **Corresponding to** Eunyoung Kim (Research Professor, Center for the Expansion of Academic on Korea, Dongguk University) E-mail : tara@dgu.ac.kr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Copyrights ©Korean Association for Religious Education

만해 한용운의 세계시민성 탐색

김은영

동국대학교 K학술확산연구소 연구초빙교수

요 약

연구 목적 본 연구는 세계시민과 불교 간의 접점을 찾고 관련 종교학 분야의 세계시민 연구의 다양성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참구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례로 근대의 종교 지형과 만해 한용운(卍海 韓龍雲)의 세계시민성을 탐색한다.

연구 내용 본 연구의 주요 논제인 세계시민성과 만해의 이상을 조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 내용을 다룬다. 첫째, 이 연구의 주요 의제 중 하나인 세계시민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위해 시민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점검하였다. 이를 통해 시민이라는 개념의 진보성을 다시 한번 뛰어넘은 세계시민의 주요 가치는 평화임을 확인하였다. 둘째, 당시 종교계 전체가 마주한 현실과 조선불교계가 스스로 가지고 있었던 현실 인식을 살펴볼 것이다. 당시 종교를 통해 문명 근대화를 이룩하려던 서구 종교, 민족주의 지향을 보이던 신종교와는 다르게 불교계는 단일한 주의 없이 근대화, 친일, 민족주의 사이에서 치열한 현실에 대응하였다. 마지막으로 앞서 검토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근대 불교 수행자 만해와 세계시민성과 어떠한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었는지 해석하였다.

결론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세계시민주의를 인류 진보의 과정이라고 볼 때, 우리 근대의 전통 안에서도 세계시민성을 찾아볼 수 있다. 특히 보편적 평화주의를 바탕으로 한 만해의 이상과 실천은 세계시민성의 지향점과 상통하는 측면이 있다.

주제어 만해(卍海), 한용운(韓龍雲), 조선불교유신론(朝鮮佛教維新論), 세계시민, 평화

I. 서 론

세계시민(global citizen, world citizen, cosmic citizen)의 기원은 ‘당신은 어디에서 왔는가’라는 질문에 디오게네스가 ‘나는 코스모스에서 온 시민(κοσμοπολίτης, cosmopolites)라고 답한 것을 통해 고대 그리스에서 그 유래를 찾는다. 모든 인간이 같은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보편적이고 상호 호혜적인 단합을 지향해야 한다는 세계시민주의(世界市民主義, cosmopolitanism)는 과학과 정치의 눈부신 진보에도 불구하고 인류가 여전히 마주하고 있는 갈등의 해결책으로 제시되고 있다. 때문에 세계시민주의에 대한 담론은 학계와 사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점점 더 활발해지고 있다. 그러나 인간의 가장 내밀한 심리적 영역을 다루는 종교와 관련해서는 세계시민과 관련된 논의가 많지는 않은 상황이다. 특히 한국에서는 종교학계 분야의 이론적 해명¹⁾, 그리고 종교계의 실천적 대화²⁾ 모두 논의의 시작 단계라고 할 수 있겠다.

이에 본 연구는 세계시민주의 연구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세계시민이라는 개념에 영향을 미친 우리나라의 여러 요소 중 종교, 그리고 그 중에서도 불교의 역할을 탐색하기 위한 고민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러나 한국불교 전체를 통해서 이 의제를 탐구하기에는 그 과정의 추상성을 극복하기 어려울 것이다. 또한 시민이라는 개념이 함유하고 있는 근대성을 고려했을 때, 근대 불교를 그 시간적 배경으로 삼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에 더해 근대 한국불교라는 역사 안에서도 다양한 스펙트럼을 모두 조망하기 보다는, 근대불교의 대표적 인물이자 근대의 극적인 조우를 통해 이후의 역사에도 영향을 끼친 만해 한용운(卍海 韓龍雲, 1879~1944)이라는 인물을 통해 세계시민성을 탐색해보고자 한다.

종교인, 수행자, 독립운동가, 교육자, 정치가로서 근대 한국사에 많은 자취를 남긴 만해는 여러 모습으로 기억된다. 그의 삶은 우리나라의 근대 초기라 구분하는 개화기에서부터 일제 강점기를 아우르기 때문에, 동시대 불교인들에 비하여 역사, 문학, 종교 등의 분야에서 많은 연구가 축적되었다.³⁾ 만해에 대한 기존 연구의 보편성을 바탕으로 세계시민이라는 새로운 특수성을 더한 이번 연구가 관련 분야에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고 다양성을 더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 논의에서 전통 종교로서의 불교가 어떻게 근대를 맞이하였는지, 그 과정에서 만해라

- 1) 강남순은 세계시민주의와 종교의 관계를 성찰하면서 사랑과 연민을 바탕으로 한 영구적 평화를 주장하였다(Kang, 2015). 유은권은 인류의 연대의 필요성을 지향하는 세계시민주의에 종교가 영적 휴머니즘으로 이론적이고 실천적인 토대를 제공할 수 있다고 논증하였다(Yoo, 2022). 김용표는 불교적 세계시민주의로서 공성(空性)과 법계연기관(法界緣起觀)의 대화 원리를 제안하였다(Kim, 2018).
- 2) 원불교 종교연합운동 추진위원회에서는 2020년부터 매년 한차례씩 종교연합 세계시민회의를 주관하고 있다.
- 3) 만해학이라는 학문 분야를 칭하는 용어가 있을 정도로 이천여 편이 훌쩍 넘는 관련 연구가 발표되었다. 만해연구소의 자료조사에 따르면, 1차 문헌 269편, 학위논문 261편, 소논문 1581편, 저서 207편 등이 있다(Manhae Festival Promotion Committee, 2022: 868-1002).

는 인물이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밝힐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 과정에서 연구의 담론이 불교학이라는 영역에만 머무르지 않기 위해 본 논의는 다음의 과정을 따르고자 한다. 먼저 이 연구의 주요 의제 중 하나인 세계시민에 대한 선명한 이해를 위해 시민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점검할 것이다. 다음으로 근대 시기 한국 종교계 전체가 마주한 현실과 조선불교계가 스스로 가지고 있었던 현실 인식을 살펴볼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근대 종교인 만해와 세계시민성이 어떠한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었는지 탐색하고자 한다.

II. 시민에 대한 다양한 관점

시민이란 누구인가. 또 세계시민은 누구인가. 이 질문에 대한 명쾌한 답이 전제되어야 만해와 세계시민성과의 관계를 탐색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먼저 시민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살펴 보겠다.

1. 시민에 대한 이해와 오해

시민이라는 개념은 넓고 다양한 의미로 해석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기존의 혈연을 바탕으로 구성된 가족이나 태어난 지역을 중심으로 구성된 자연적인 공동체를 넘어 인위적이고 사회적으로 만들어진 공식적인 공동체의 구성원을 가리킨다. 대표적인 시민 개념의 기원은 고대 그리스 도시국가에서 찾아볼 수 있다. 폴리스는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통치하는 민주정치체제로 운영되었다. 아테네 시민은 누구나 에클레시아에 정책을 제안할 수 있었는데, 다만 아테네인 부모로부터 태어난 성인 남성만이 시민으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다.

건국 이후 왕정 체제를 유지하던 로마는 귀족 중심의 공화정으로 정치 체제가 변화한다. 이후 원로원, 집정관, 민회를 중심으로 다시 정치 체제가 변화되면서 평민도 법적 참정권을 인정받는 시민이 된다. 처음에는 로마와 인접 지역의 남성 자유인에게만 시민권이 부여되었으나 지속 되는 전쟁 과정에서 전쟁에 참여한 남성 자유인, 이탈리아 지역의 남성 자유인, 최종적으로 안토니누스 칙령에 따라 로마 제국에 거주하는 모든 남성 자유인으로 그 범위가 확장된다. 로마 시민권의 확대 과정은 서로 다른 대륙과 다양한 인종으로 구성된 수많은 사람들의 단일한 시민권 소유라는 측면에서 정치사에 있어 하나의 역사적 사건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근대 유럽의 계몽주의는 정치적으로 시민 혁명을 초래했다. 지식의 보급을 통한 권력의 분산으로 한 단계 진일보한 시민혁명은 봉건적 위계질서, 출생에 따른 신분 차별의 족쇄로부터 개인을 해방시켰다. 생명과 자유와 재산의 소유자이면서 동시에 국가 주권의 향유자로서 시민의 등장은 합리성의 시대인 근대의 상징이기도 했다.

왕족이나 귀족 같은 특수 계층만이 정치적 권력을 독점하던 것에 비해 개개인의 정치적 개방성을 달성한 시민은 진보를 향한 인류의 방향성을 보여준다. 그러나 여전히 차별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시민의 한계에 대한 많은 지적과 반성도 있다(Kim, 2022: 39). 근대 시민의 대다수가 실제적으로는 자산가이자 이성을 지닌 개인이라는 점은 재산 소유에 취약하거나 합리적 판단력이 떨어진다고 여겨지는 미성년자와 여성들의 소외라는 배타적 측면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시민의 개념이 형성되는 과정에서의 긍정적인 측면이 앞으로도 발현되길 기대하면서 현대의 개인들에게 사유, 판단, 행위, 책임의 주체로서 좋은 시민(the good citizen)이 되기를 여전히 주장하기도 한다(Lee, 2022: 463-464).

시민이라는 개념의 복잡성 때문에 그 정의에 대해 의견이 분분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논고에서는 지나온 자취와 방향성을 고려했을 때, 신분과 정치적 억압으로부터 자유로운 상태를 추구하는 깨어있는 개인이 바로 시민이라고 정의내리고자 한다.

2. 근대 한국의 시민 이해

그렇다면 우리 근대에서 시민은 어떻게 이해되고 있을까. 동시대 서구와 같은 의미로 시민을 이해하고 있었을까. 만해의 시민관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 근대의 시민에 대한 인식을 살펴해보았다.

시민이란 단어는 *civilian*이란 영어 단어의 번역어로 서구의 맥락에서 탄생한 어휘이다. 반면 우리 전통에서 민(民)은 하층민을 가르치는 말이었다(Jeong, 2022: 389). 또한 전근대에 해당하는 조선에서도 시민이라고 지칭되는 특수 집단이 존재했다. 장시 같이 특수한 공간에서 조정과 연결되어 상업활동을 하는 사람들, 혹은 한성 지역 평민의 대표격이 시민으로 불리기도 했다. 이들은 정치적 상황에 있어 주체적이기보다는 위계 안에서 자유가 제한되었다. 그러나 개항 이후 상업활동이 확장되며 시민의 개념도 확대된다(Park, 2009: 180, 183, 197). 서구에 바탕을 둔 새로운 개념으로서 번역어 시민이 등장한 것은 일본이었다. 우리의 경우 구한말 정치변동에 따라 시민 개념이 수용되었다. 또한 식민지 하에서는 전통적 의미의 시민과 서구적 의미의 시민이 혼합되어 사용되기도 하였다(Park, 2009: 205, 212, 219).

이러한 시민에 대한 복잡한 이해, 혹은 비교적 적은 비중의 관심이 당시 사회의 대체적 인식이었다. 현대 이전까지 우리 사회에서 시민은 사회의 주요 담론의 대상이 아니었던 것이다. 만해가 속한 불교계도 이러한 경향을 벗어나지 못 했다. 만해의 수많은 저술 중에서도 시민에 대해 언급한 흔적은 찾아보기 어렵다. 다만 앞서 정의한 깨어있는 개인으로서 시민이 이 시대에 존재하지 않았다고 단언할 수는 없다. 우리 사회에서 19세기 중후반부터 시민 개념이 새롭게 주목받기 시작했는데, 특히 백낙청은 시민문학론을 통해 동학과 3.1운동과 4.19로 이어지는 민족사 흐름 속 우리에게도 이상적 시민주체가 있었다는 주장을 펼치며 만해를 근대 최대의 시민

시인이라고 평가한다(Paik, 1969: 29). 비록 만해가 활동했던 근대라는 시대에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시민에 대한 개념과 논의가 없었을지라도 시대와 인물에 대한 맥락적 이해를 통해 충분히 그 시민성을 찾아내고 해석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3. 세계시민의 특성과 가치

시민은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공적인 공동체, 특히 민주주의와 공화정을 표방하는 정치공동체의 구성원을 가리킨다. 이 개념은 과거의 혈연, 지연 등으로 구성되는 자연적인 공동체의 구성원과 반대되는 개념으로써 이해할 수 있다. 이에 더해 세계시민은 국가시민의 경계를 넘어서 등장한다. 출생지, 소속, 종교, 인종, 성별 그 모든 것과 상관없이 평등한 인간으로서 지구적 위기에 직면한 인류공동체의 문제를 함께 대응할 주체가 바로 세계시민인 것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세계시민의 연원을 대표적으로는 서구 고대 그리스에서 찾는다. 또한, 키케로, 스토아학과, 칸트도 세계시민에 대해 깊이 천착했다. 동양의 경우 천하(天下) 사상이나 유가의 대동론(大同論)에 찾기도 하며(Chang, 2020; Huh, 2004), 불교의 카스트 철폐에서 그 실천 사례가 발견되기도 한다. 이렇게 세계시민주의는 다양한 전통의 유사한 개념들과 서로 영향을 주고받았다고 할 수 있다(Nussbaum, 2020: 19). 즉, 인류가 지향해온 자유와 평등 같은 보편적 가치에 대한 인간의 자연적 욕구는 아득한 옛날부터 존재했기 때문에(Park, 2010: 293), 세계시민에 대한 지향 역시 시대나 지역과 같은 기준으로 경계할 수 없다.

비록 인류가 정치와 도덕적 측면서 누적적 진보를 이루어 온 것은 아니지만, 자연적 공동체에서 공적인 공동체로의 변모, 그리고 세계시민주의에 대한 새로운 도전은 경계를 지워나가려는 진보의 방향성을 보여준다. 시민이 자유인으로서 개인적 측면의 한계를 뛰어넘는 존재였다면, 세계시민은 개인의 자유 뿐 아니라 타인에 대한 연대를 중심으로 한 보편적 평화까지 추구하는 존재이다. 즉, 세계시민은 시민보다 한층 진보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세계시민의 특성을 바탕으로 세계시민주의가 표방하는 가치는 다음과 같다. 개방적 민족주의, 인간의 권리, 지구적 정의, 영구적 평화, 지구적 공동체를 추구한다(Kang, 2015: 63-68). 혹은 지구적 세계관, 인권과 다양성 존중, 배려와 평화적 갈등 해결을 꼽기도 한다(Huh, 2004: 188~191). UNESCO는 세계시민교육에 대해 “더 정의롭고, 평화로우며, 관용적이고, 포용적이며,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세상을 만드는 데 앞장설 수 있도록 필요한 학습자의 지식과 기술, 가치와 태도를 계발”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 교육 패러다임으로 정의하고 있다(UNESCO, 2014: 17). 세계시민주의에 있어 언급되는 주요 가치들은 복합적이고 다양하게 주장되고 있으나, 공통적인 개념으로 강조하는 것은 평화이다. 추상적인 가치인 평화를 실천의 영역으로 이끌어내기 위해 세계시민교육은 평화교육이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Reardon, 2021). 인간 외 비인간 동물들과 자연환경에 대한 고려 부족으로 인해 세계시민주의는 고귀하지만 결

함 있는 이상이라고 지적되기도 하지만(Nussbaum, 2020: 33), 인류가 지향할 보편가치들을 실현해나가는 동력으로서 세계시민주의는 여전히 유효하다. 더 나아가 현대적 의미의 세계시민성을 과거에서 발굴하는 시도가 새로운 미래를 위한 마중물이 될 수 있을 것이다.

III. 개항기와 식민지 시기 종교계의 현실

1. 외래, 신흥, 전통의 종교 확대 시대

개화를 통해 근대로 진입한 조선은 정치, 사회, 사상적 측면에서 큰 변화와 혼란을 겪었다. 이런 변화에 영향을 받은 것은 종교계도 마찬가지였다. 특히 개항을 통해 서구 문화와 함께 유입된 새로운 종교들과 전통을 상징하던 기존 종교들이 당면한 현실은 사뭇 달랐을 것이다. 이 시기 종교에 대한 인식 변화는 사회문화적 분화, 신분 제도의 변화, 서구 문화의 유입 등 개화기 변동과 밀접히 연결되어 있었다. 이 시기의 변화로 인해 종교라는 개념 자체가 순수화되고 보편화되는 동시에 전통 종교, 자생적 민족종교, 서구 종교들 사이의 경쟁상황이 실현되는 근대적 다원주의가 시작된다(Kim, 2001: 248). 때문에 각 종교들마다 근대라는 현실을 바라보는 입장과 시각이 다를 수밖에 없었다.

구한말부터 새로운 문화를 형성하던 종교들을 크게 세 갈래로 볼 수 있다. 첫째, 개항에 따라 유입된 외래 종교로 기독교가 그 대표이다. 둘째, 대안적 공동체로 등장한 신흥종교로 동학, 천도교, 증산교, 대종교, 원불교 등이 이에 해당한다. 셋째, 전통적으로 윤리와 문화를 담당해 온 종교로서 유교와 불교가 있고, 여기에 무속까지 포함할 수 있다. 물론 각 종교는 다양한 구성원으로 조직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도 각자의 역동성을 가지고 있었으나 대체적인 경향과 태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문명국 서구에서 비문명국 조선으로 온 개신교 선교사들은 근대적 가치를 전파하려고 하였다(Lee, 2005: 85, 102). 천주교 선교사들 역시 미개국 조선을 서양의 문명과 종교로 개화시켜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있었다(Yoon, 2006: 285). 즉 서구에서 온 기독교인들은 조선이나 대한제국의 국권 같은 사회적 문제보다도 전도를 통한 정신적 차원의 개화, 문명 근대화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반면 근대라는 변화의 시기에 탄생한 신흥종교들의 입장은 달랐다. 당시 신흥종교들은 비슷한 시기에 발행하여 유사한 역사적 상황에서 전개되었고, 민족에 대한 이해는 저마다 달랐으나 대부분 민족주의적 경향을 가지고 있었다(Kang, 2005: 204-205). 이 중에서 동학은 단순히 민족정신에 머무르지 않고 천도교로의 개신을 선언하면서 근대적 제도 종교의 탄생의 일단을 보여주었다(Ko, 2005: 109).

전통을 상징하는 종교 중 유교는 개인적 차원에서는 도덕을, 사회적 차원에서는 정치를 담당하고 있었다. 그러나 새롭게 자리 잡은 근대적인 인식체계 속에서 유교는 전통윤리로서의 역할에 갇혀 독자적인 종교로 정립되지 못 하였다(Lim, 2006: 77). 고려 이후 유학자들에게 비판받고 사회의 부정적인 시각을 받았으나 여전히 삶의 한 부분으로 실천되었던 무속이 미신이라는 말로 대변되는 것은 근대 시기 기독교의 배타적인 태도와 일제의 식민주의 정책이 큰 영향을 미쳤다(Lee, 2005: 269-271).

이렇게 다양한 입장을 가진 종교들에 대한 정책은 통제를 위해 활용되는 경우가 많았다. 조선총독부는 조선인의 신앙을 종교[신도, 기독교, 불교]와 유사종교[천도교, 보천교 등]로 구분해 통제했다. 총독부는 신사참배를 거부하는 개신교를 옥죄었다. 반면 천주교는 정교분리의 원칙을 지키려는 입장이었다. 사회적 영향력을 크게 발휘한 것은 천도교로 문화계몽운동에 앞장섰으며, 1930대 친일로 돌아서기 전까지 민족주의 기치를 유지하였다.

이 시기 종교들은 근대라는 새로운 기회를 적극 이용하거나, 새로운 시류를 인식하며 변모하거나 도태되었다. 그렇다면, 만해가 몸담았던 불교계가 가졌던 근대에 대한 현실 인식은 어떠했는가는 별도의 장에서 살펴보겠다.

2. 불교계의 근대 인식

근대를 맞이하여 우리나라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특히 불교에 대한 조선 사회의 큰 인식 변화가 일어났으며, 동시에 불교계도 그 변화에 다양한 호응을 한 시기이기도 하다. 근대 이전 불교는 고려 말부터의 엄중한 배불(排佛)의 기운이 조선 시대에 들어서는 구체화되어 엄격한 도첩제 시행, 궁중의 불사 폐지, 종단의 축소 등 다방면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명종 때 문정왕후의 섭정으로 잠시 불교 탄압이 멈추었으나, 이후 다시 시작된 억불 정책으로 불교는 산 속으로 은둔하여 겨우 그 명맥만을 유지하였다. 정치적 어려움과 별개로 몇 백 년을 이어져 내려오면서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조선 후기에 외래 종교 유입에 대한 사회적 반발로 불교에 대한 친밀감이 높아지기도 한다(Takahashi, 1929: 852). 식민지 시기에는 사찰령에 의해 일제로부터 교묘하게 이용당하면서도 탄압을 당하는 상황에 놓여 있었다. 불교의 이런 복잡다단한 입장은 당연히 승단에 속한 승려들에게도 영향을 미쳤다. 일본불교가 조선으로 들어오며 승려의 도성 출입 허용이라는 새로운 기회가 열렸지만, 이것은 근대의 출발이 주체적일 수 없었던 조선불교계의 한계를 상징하기도 한다. 당시 조선불교계에는 어려운 현실을 일부 개선해준 일본불교에 대해 경외감을 느끼면서도, 그 확산에 대해 침투로 여기는 등 상반된 반응들이 공존했다.

대한제국의 불교에 대한 정책도 불교계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갑신정변부터 시작된 격동의 시기에 조선은 왕국에서 대한제국 선포를 통한 전환으로 새로운 활로를 모색했다. 동시에 일본

은 불교라는 종교를 앞세워 정신적인 침략 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조선 진출을 염두에 두고 일본 정토종이 경성개교소(京城開敎所)를 세우는 등 본격적인 활동에 나서자, 대한제국은 사찰 창건을 지원하여 조선불교를 지키고자 했다. 필요한 경비 대부분을 황실 내탕금 20만냥으로 부담하여 1902년 원흥사(元興寺)를 창건하고, 대법산국내수사찰(大法山國內首寺刹)로 만들어 전국 사찰을 통합하고 관리하려 시도했다. 일종의 국립사찰(國立寺刹) 성격이 컸기 때문에 원흥사는 대한제국 불교의 중심이 되었고, 이 과정에서 종단 역시 근대적인 형태와 체계를 가지게 된다. 그러나 대한제국이 쇠락을 길을 걷고, 일본이 노골적인 침략 의지를 드러내면서 점차 창건 초기의 취지가 사라진다. 《매일신보》(1910.10.6.)는 “동대문 밖 원흥사는 불교 원종종무원(圓宗宗務院)이라 개칭되다”라고 보도했다. 1912년에는 원종종무원을 폐하고 30본산회의소(三十本山會議所)로 개칭되는데, 이 과정에서 친일 승려들이 원흥사를 장악하게 된다. 원흥사의 흥망 성쇠는 당시 조선불교계의 상황을 함축적으로 보여준다. 불교계 내에서도 원흥사 창건을 한국 불교사에 있어서 근대적 전환의 중심 사건 중 하나로 지목한다. 권상로는 원흥사 창건에 대하여 산림불교에서 도시불교로, 승니불교에서 민중불교로, 사찰불교를 사회불교로 진출시키는 계일보가 되었다고 높이 평가하였다.

결국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지 전략으로 친일불교계가 주류를 장악하자, 당시 불교의 왜색화와 맞서는 것이 불교 개혁이자 애국이라고 생각하는 승려들이 등장한다. 이후 근대 불교계는 수행 선종을 진작하고, 결사정신을 계승하며 각성한다. 동시에 명진학교(동국대학교 전신)을 설립하며 승가 교육의 근대적 변화를 도모한다. 이때 불교개혁론이 등장하는데, 그 중심에 만해가 있었다. 조선불교에 대한 일제의 통제는 점점 거세졌으며, 이에 대한 불교계의 저항도 커져 간다. 승려들의 독립운동 참여, 불교청년회의 결성과 활동, 전통수호 운동 등 식민지 체제 속의 한국불교는 진통을 겪는다. 전통과 근대의 충돌, 친일과 독립의 충돌, 사회적 제도를 통한 통제와 혁신이 끊임없이 반복하던 시기였다(Kim, 2015b: 5). 외래 종교와 신흥종교와는 전혀 다른 입장에 서있던 불교는 근대를 맞이하거나 잠식당하던, 다른 어떤 종교보다 근대의 시기에 격변을 겪었다. 그래서 조선불교계 안에서도 자신이 처한 상황과 신념에 따라 제각각의 근대인식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IV. 근대 종교인 만해의 이상과 실천

만해의 출생 즈음의 조선은 일제 침략의 첫 발걸음으로 개항, 왕조의 내외위환 등으로 격변의 시기를 보내고 있었다. 양반에 대한 사회적 권위가 약해지는 시기였으나 유교적 집안 분위기에 따라, 그는 서당에서 한학을 배우며 유년기를 보냈다. 당시 그가 성장하던 흥성 일대는 남당유학의 전통이 상당한 지역이었고, 어린 시절 만해 역시 수준 높은 한학 교육과 유교 사상

에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Kim, 2015a: 13-14). 그의 나이 17세인 1985년에는 부친 한응준이 동학농민운동 진압에 참여하였다가 사망하였다. 성장 과정에서 겪었던 점점 거세지는 사회 변화와 집안의 우환으로 그는 개인 차원의 실존과 사회 차원의 현실적인 고민을 동시에 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즈음 불교에 대한 관심이 시작되면서, 19세인 1897년에 고향인 홍성 근처의 사찰에서 머물던 중에 불경에 심취하여 불교에 귀의하기로 결심하였다고 한다. 청소년기부터 청년기 초기라는 감수성이 예민한 시기에 역사적 격변기 속에서 실질적인 영향을 받으면서 만해는 청년이 된다. 동아시아의 전근대적 가치를 견지하면서도 서구적 근대 가치 수용에도 적극적이었던 만해의 삶과 사상이 근대 초기 한국의 근대 인식 양상의 구체적인 예라는 주장에 힘입어(Lee, 2020: 21), 역사적 사건들 속에서 삶과 사상의 변화 과정을 중심으로 근대 이후의 개념인 세계시민성에 대한 만해의 입장을 탐색해 보았다.

1. 주체적 근대 인식 재형성과 확립

만해는 본인이 겪고 있는 국가와 민족공동체에 대한 고뇌와 삶의 실존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출가를 선택했다. 백담사의 김연곡 스님과 인연을 맺고 정식으로 불교에 귀의한다. 그때부터 만해의 일생을 가장 잘 대표할 수 있는 요소인 청년기 이후 몸과 마음을 담았던 불교인으로서의 삶이 펼쳐진다. 출가 이후 그는 백담사와 유점사 등지에서 불교 경전을 공부하고, 건봉사에서는 선(禪) 수행을 하는 등 전통적인 수행승으로서의 궤적을 그린다.

그러나 동시에 그가 마주한 것은 식민지 조국이라는 사회적인 현실이었다. 총독부는 1911년 사찰령을 제정해서 전국 사찰을 30본산으로 개편하고 직접 주지를 임명해서 조선불교계 통제를 시도한다. 이 때문인지 30대부터는 개인의 공부나 수행보다는 사회 활동이 활발해진다. 전통과 근대의 갈림길에서 만해는 근대로의 걸음을 선택한 것이다. 30세인 1908년에는 일본을 여행하며 근대화된 일본을 마주하고, 조동종 대학림(曹洞宗 大學林)에서 불교와 서양철학을 공부하였다. 이때만 해도 만해에게는 민족에 대한 의식보다는 문명 습득과 불교 발전에 대한 열망이 더 컸다(Kim, 2015a: 39-42). 만해는 30대 초반에 중추원(中樞院) 헌의서(獻議書)와 통감부(統監府) 건백서(建白書)를 통해 승려의 결혼 허용을 청원하는데, 이는 그의 대표적인 결단이자 실책으로 지적되기도 한다. 그러나 당시 조선의 불교계 전반이 제국주의나 일본불교의 의도를 잘 이해하지 못 하고 정채성 수호의 방향 감각에 혼란 상태였다는 것을 고려하면(Kim, 2000: 18-19), 이 청원은 본인이 속한 불교를 근대로 이양하려던 선택이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1910~1911년 사이 만해는 조선불교의 개혁을 주창하여 불교근대화의 이론적 초석이 된 『조선불교유신론(朝鮮佛教維新論)』을 집필한다. 집필 시기 동안 국가적 차원에서는 조선의 국권 상실, 불교적 차원에서는 원종과 조동종 맹약 사건, 임제종 운동의 좌절을 겪었고, 이러한 경험들을 통해 민족에 대한 자각이 시작된다(Kim, 2015a: 48-49, 52-59). 이후 그는 뜻을 함께하는 승

려들과 이에 맞서며 민족불교를 수호하는 궤기대회를 열고 불교개혁을 도모하였다. 3·1운동 이후, 불교청년들이 조선불교유신회 등을 결성하여 불교 개혁과 대중화 운동을 주도하게 된다. 친일 불교에 반대하고 조선불교의 맥을 이으려는 각종 정치, 교육, 집필 활동, 그리고 그 연장선상으로서 독립운동에 주력하면서, 만해는 근대인으로서의 본인 스스로의 의지를 재형성하고 실천하였다. 이러한 그의 활동은 서양과 일제의 제국주의에 대해서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었던 조선의 불교 지도자나, 이웃 종교인들과의 다른 지점으로 자리매김한다. 근대 조선불교가 친일 등으로 왜곡된 시대를 보내면서도 동시에 저항의 역사가 있었다고 평가 받을 수 있는 것은 만해와 같은 선각자들 덕분이었다(Pak, 2019: 632).

이러한 만해의 근대인식은 서구의 가치였던 자유와 평등으로 정리할 수 있으나, 그 수용은 단순히 서구의 시대 인식을 동아시아적으로 맥락화하는데 멈추지 않고 동아시아적 가치의 근대적 주체적인 재맥락화였다고 볼 수 있다(Lee, 2011: 59). 그의 근대 인식이 일부 한계와 오류가 있을 수 있으나 큰 줄기에서 보자면 근대라는 주어진 시대를 주체적으로 인식하고 재형성하고 확립하는 과정이었던 것이다(Jung, 2017: 128-132). 또한, 근대를 인식하는 차원에서 멈추지 않고 전통을 토대로 문명국의 지식을 주체적으로 수용하자는 교육론을 펼치며 실천의 영역으로 확장시키는데, 여기서 말하는 교육의 핵심으로 스스로의 관점으로 세계를 사유하는 자유라는 개념을 중요하게 내세운다(Lee, 2007: 79). 신분과 정치적 억압으로부터 자유로운 상태를 추구하는 깨어있는 개인이라고 정의내릴 수 있는 시민이라는 개념에 비추어 본다면, 그를 전근대 불교인이라기보다는 이미 근대적 의미의 시민이라고 인정함이 바람직할 것이다.

2. 세계시민성과의 접점

앞서 논의에서 직접적으로 세계시민주의를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동서양의 전통들에서 세계시민성과의 접점을 찾는 시도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우리의 근대, 그리고 만해에게서도 그 실마리를 해석해낼 수 있지 않을까. 무엇보다 세계시민주의의 주요한 가치로 확인하였던 평화에 중요성에 대해 만해 역시 깊이 천착하였기 때문이다. 주체적 근대인으로서의 만해가 사회적으로 미친 영향과 세계시민성과의 접점을 찾으려면, 그의 활동 중 공적인 측면에서 참구해보아야 할 것이다. 수많은 기록이 있지만, 그가 몸담았던 불교계에 있어서는 불후의 명논설이자 그의 공식적인 첫 집필인 『조선불교유신론』, 대사회적으로는 『조선독립이유서』를 중심으로 살펴봄이 바람직하다.

일본의 불교계와 새로운 근대 문물을 접하고 조선으로 돌아온 만해는 1909년부터 『조선불교유신론』 집필을 시작하여 1913년에 간행한다. 이 책에는 당시 조선불교계에 대한 개혁 의지만을 담은 것이 아니라 불교의 진리관으로 구세하려는 만해의 굳은 의지가 담겨 있다고 평가된다. 이 논설은 전체가 서론과 본론격의 17장과 결론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중 초반 1~4장은

만해의 불교관을 엿볼 수 있는데, 개혁을 위한 실천의 이론적 근거이기도 하다. 들뢰즈는 이론과 실천의 관계는 전혀 부분적일 수 없으며, 푸코는 이론은 실천이라고 하였고, 스피박은 이론을 창출하는 것은 새로운 세계를 특정한 방식으로 만들어가면서 실천을 창출하는 것이라고 했다(Kang, 2015: 36-38 재인용). 『조선불교유신론』의 결론의 “움직이는 마음이 있으면서도 겉으로 나타나지 않는 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라는 문장에서도 이론과 실천이 깊이 연관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다. 즉, 만해 역시 『조선불교유신론』의 초반에 본인의 불교관을 정리하면서 이미 실천을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제3장 논불교지주의(論佛敎之主義)에서는 불교의 지향점을 평등주의와 구세주의의 둘로 나누어 설명하며 불교의 특징을 밝히고 있다. 여기서 만해가 말한 평등은 서구적 가치인 평등보다는 불교적 재인식 차원에서의 진여이자 진리였으며, 서구적 의미로는 자유에 가까웠다. 즉, 그가 불교를 근거로 말하는 평등주의는 근대적 언어로는 자유주의나 세계주의에 가까웠다. 반면 구세주의는 상구보리 하화중생(上求菩提 下化衆生)으로 대표되는 대승불교 이해의 불교 정신의 계승이자, 만해가 근대 언어로 풀어낸 불교의 사회적 책무에 대한 호명이었다. 여기서 보이는 일련의 비체계성이나 피상성의 한계는 근대라는 시기의 이상적 가치는 이미 불교 안에 구현되어 있다는 만해의 태도로부터 기인한다(Lee, 2009: 204-206, 208-209). 그가 지닌 근대 인식의 오류의 원인으로 『조선불교유신론』 제2장 논불교지성질(論佛敎之性質)에 언급된 불교 만능주의가 지적될 수 있다. 또한 이 집필 시기의 한용운의 현실 인식은 조선불교 개혁을 위한 열정과 실천적 지성은 있었으나 민족불교나 민족의식의 단계까지는 이르지 못 하였다(Kim 2003: 152).

『조선불교유신론』의 탈고시기인 1910년으로부터 9년여 후에 발표된 「조선독립이유서」는 만해가 서대문형무소에 수감되어 있을 당시 일본 검사의 요구에 의해 집필된다.⁴⁾ 그 사이 축적된 개인의 연륜과 더욱 엄중해진 식민지 현실 때문인지 이 논설은 자유와 평등과 평화를 중심으로 민족주의를 강조한다.

自由는 萬有의 生命이요 平和는 人生의 幸福이니, 故로 自由가 無한 人은 死骸와 同하고 平和가 無한 者는 最苦痛의 者라 壓迫을 被한 者의 周圍의 空氣는 墳墓로 化하고 爭奪을 事하는 者의 境涯는 地獄이 되나니 宇宙萬有의 理想的 最幸福의 實在은 處 自由와 平和라. 故로 自由를 得하기 爲하야는 生命을 鴻毛視하고 平和를 保하기 爲하야는 犧牲을 甘飴嘗하나니 此는 人生의 權利인 同時에 또한 義務일지로다. 그러나 自由의 公例는 人의 自由를 侵치 安이함으로 界限을 삼나니 侵掠의 自由는 沒平和의 野蠻 自由가 되며 平和의 精神은 平等에 在하니 平等은 自由의 相敵

4) 이 논설의 제목으로 「독립 이유서」, 「독립운동 이유서」, 「조선독립 이유서」, 「3·1독립선언 이유서」, 「조선독립 감상의 개요」, 「조선독립에 대한 감상의 개요」, 「3·1독립선언 답변서」, 「조선독립 감상」 등 다양하게 호명된다(Kim, 2011: 283). <독립신문(1919.11.4, 제25호)>에 수록된 제목 그대로 「조선독립 감상의 개요」라고 그대로 따르는 것이 타당하기는 하나(Lee, 2011: 59), 본고에서는 가장 대중적으로 호명되는 「조선독립이유서」라는 제목을 사용하였다.

을 謂함이라. 故로 威壓的 平和는 屈辱이 될 이니 眞自由는 반다시 平和를 保하고 眞平和는 반다시 自由를 伴할지라. 自由여 平和여 全人類의 求일지로다 (Han, 1979: Vol. 1, 354).

『조선불교유신론』에서 강조하던 자유와 평등에 더해 『조선독립이유서』에서는 평화라는 개념이 주요하게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글 전체의 핵심은 바로 평화라는 평가도 있다 (Park, 2017: 50). 즉, 만해는 불교의 개혁을 통한 평등과 구세, 이어 민족의 독립을 통한 평화의 완성이라는 단계로 이상과 실천을 확장해나갔다. 이런 인식을 민족주의를 넘어선 세계평화의 지향으로 보거나 반면에 여전히 민족주의로 평가하는 등 그 해석이 다양하지만, 만해의 근대 인식이 기본적으로 불교를 기반으로 한다는 점을 유념해 볼 때, 만해의 평화란 민족의 개념을 넘어선 세계평화였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Kim, 2022: 366, 374). 그가 사용한 평화의 개념은 이미 근대성과 현대성을 함유하고 있었기 때문이다(Kim, 2013: 33). 만해가 불교를 바탕으로 세상을 인식했기 때문에 민족주의의 경계를 벗어나 일관되게 평화를 주장하고 실천할 수 있었던 것도 유념할 지점이다. 만해의 탈근대성은 보편불교를 바탕으로 일체 중생의 행복을 지향하고 있었으며, 국가와 민족과 같은 특수성에 매몰되지 않았다(Kim, 2015c: 685-689).

당시 만해의 현실 중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것이 민족의 자립이었기 때문에 독립운동에 집중한 것이지만, 다른 현실이 펼쳐졌다면 또 다른 형태의 실천이 이어졌을 것이다. 즉, 조선의 독립은 평화라는 큰 지향점을 향해가는 과정 중의 하나의 목표라고 해석할 수 있다. 더불어 우리가 지향해야 할 세계시민주의는 국가시민성과 공존해야만 현실적 차원의 실천 가능성을 담보한다는 측면에서도(Kim & Park, 2015: 16) 만해의 이상과 실천을 민족주의와 세계주의 중 하나를 선택해 평가할 것이 아니라 그런 개념들을 뛰어넘은 보편주의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V. 결 어

시민들로 구성된 시민사회의 본격적인 성장은 1980년대 서구가 중심이었다. 개인 정체성의 확립, 민주주의의 발전, 복지사회의 구현, 개개인의 삶의 질 증대 등 거의 모든 것이 시민사회의 가치 및 역할과 연결되었다. 물론 이것은 수백 년 간 서구에 축적된 정신적이고 물질적인 토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동시에 유럽의 많은 사회학자들이 시민사회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를 활발하게 진행한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전이가 되어 민주화운동과 더불어 시민사회 구현과 담론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우리나라의 시민사회의 시초를 언제로 볼 것인가에 대해서 1890년대 동학혁명부터 1987년 6월 항쟁까지 그 태동시기에 대한 논쟁은 여전히 분분하다(Park, 2015: 44-45). 서구적 시민, 그리고 우리나라의 시민 개념의 역사적 형성 과정을 본다면, 근대 조선의 불교인이었던 만해의 삶과 사상에서 그 접점을 찾으려는 것은 어쩌면 맞지

않는 시도일 수도 있다. 그러나 깨어있는 주체적 개인이자 소속과 경계에 매어있지 않으며 보편적 평화를 추구하는 세계시민이라는 근본적인 의미를 되짚어 보면, 만해는 일생에 걸쳐 세계 시민이 되고자 실천하고자 노력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특히, 그의 주요 논설에서의 주장한 자유와 평등, 이어져 더해진 평화와 같은 개념들은 현대의 세계시민 논의에서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 목표와도 깊이 맞닿아 있다. 물론 그의 자유와 평등과 평화가 세계시민주의가 말하는 자유와 평등과 평화와 완벽한 동의어는 아닐 수 있다. 근대 불교인으로서 가질 수밖에 없는 만해의 한계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서구에서도 자유, 평등, 평화, 시민, 사회의 개념은 자기 오류를 극복하며 계속 도전받고 변화해왔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될 것이다. 또한 만해의 연구에서 아직 깊이 조망되지 않은 분야이기도 하나 그는 여성해방운동이나 농민과 노동자 등 인권 문제에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이는 그가 서구의 근대 이성의 시민으로서 사유재산을 가진 백인 성인 남성으로 대변되는 제한된 의미의 시민들보다도 진일보한 가치를 가지고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다.

시민은 부여되는 계급이 아니다. 끊임없는 자기 혁신을 통해 스스로 완성된다. 세계시민은 근현대의 시민이 가지고 있었던 한계를 인식하며 다시 새로운 세계와 평화를 꿈꾼다. 세계시민주의를 완전체가 아니라 진보의 과정 자체라고 본다면, 만해의 세계시민성은 이미 이룩되었으나 여전히 지향되어야 할 근대적, 탈근대적, 그리고 현재적인 이상향일 것이다.

References

- Chang, C. W. (2020). The Greco-Roman Origin of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The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Ideas* 34(1), 207-228.
- Huh, Y. S. (2004). An Essay on the Concept of Global Citizen: A Theoretical Basis of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Asian Journal of Education*, 5(3), 165-195.
- Jeong, S. G. (2022). The Senses of People in Terms of Nation, Citizen, Mass, and Comrade. *Studies in Philosophy East-West*, 103, 381-402.
- Jung, H. J. (2017). Subjective Modernization of Buddhism and Mind Practicing in the Buddhist Restorationism of Manhae(萬海) Han Yong-un. *Korea Journal of Buddhist Studies*, 51, 125-157.
- Kim, C. S. (2001). Socio-cultural Changes and Religious Cognition of the Modernization Period in Korea, *Hangukmunhwa*, 28, 229-250.
- Kim, D. S. (2022). World People's Philosophy and Education by Ham Seok-heon. Fall Conference of the Korean Association for Religious Education in 2022.

- Kim, G. S. (2003). Chosun's Buddhist Reformation and Yongwoon Han's National Consciousness. *Journal of Studies on Korean National Movement*, 35, 121-156.
- Kim, G. S. (2013). Manhae's Thought and Modern isms. *Journal for the Manhae*, 13, 7-35.
- Kim, G. S. (2015c). Buddhism, Identity, Modernity, and Post-modernity by Manhae Han Yong-un. *The Manhae Festival*, 2015, 673-695.
- Kim, N. J. & Park, C. G. (2015). Cosmopolitanism and Global Citizenship in the Age of Globalization: Which Cosmopolitanism and Global Citizenship Should We Follow? *Journal of Ethics*, 1(105), 1-34.
- Kim, S. S. (2022). Han Yong-woon's Independence Movement for World Peace. *Korean Cultural Studies*, 96, 357-379.
- Kim, Y. P. (2018). A Meaning of Buddhist Cosmopolitanism: Focussing on the Dialogue Principle of Emptiness and Causality. *Peace and Religions*, 6, 9-42.
- Lee, H. J. (2021). Arendt's Concept of Citizenship and Citizenship Education at University. *Studies in Philosophy East-West*, 101, 457-480.
- Lee, J. J. (2007). A Study of Man-hae, Han yong-hoon's Educational Theory. *Journal of Research in Education*, 27, 57-83.
- Lee, S. H. (2009). The Characteristics and Meanings of Manhae Han Young Un's Consciousness about the Modern Buddhism through Joseon-bulkyo-yushim-ron. *Comparative Korean Studies*, 17(2), 193-215.
- Lee, S. H. (2011). Han Yongun's way of Modern Era Awareness. *Manhae Studies*, 7, 56-77.
- Nussbaum, Martha C. *The Cosmopolitan Tradition: A Noble But Flawed Ideal*. 강동혁 옮김 (2020). 세계시민주의 전통. 서울: 뿌리와이파리.
- Paik, N. C. (1969). Civil Literature Theory. *Creation and Criticism* 14, 461-509.
- Pak, B. K. (2019). With the Modern and the Postmodern of Korean Buddhism. *Journal of Peace and Unification Studies*, 9(2), 29-58.
- Park, J. H. (2017). Manhae Han Yong-Un's Peace Thought. *Journal of Eastern-Asia Buddhism and Culture*, 40, 625-651.
- Park, S. P. (2015). The Changes of Korean Civil Society and Its New Roles. *NGO Research*, 10(2), 35-68.
- Reardon, Betty. *Comprehensive Peace Education: Educating for Global Responsibility*. 강순원 옮김(2021). 포괄적 평화교육. 서울: 살림터.
- Yoo, Y. G. (2022). Cosmopolitanism and Religion in the Era of Globalization. *Studies in Religion*, 82(1), 113-139.

- 강남순 (2015). 코즈모폴리타니즘과 종교. 서울: 새물결플러스. (Translated in English) Kang, N. S. (2015). *Cosmopolitanism and Religion: In Search of Perpetual in the 21th Century*. Seoul: Holly Wave Books.
- 강돈구 (2005). “근대 신종교와 민족주의 I”. 강돈구 외. 근대성의 형성과 종교지형의 변동 I. 경기: 한국학중앙연구원. (Translated in English) Kang, D. G. (2005). New Religion and Nationalism in Modern Era. Kang, D. G. et al. *Formation of Modernity and Changes in Religious Landscape I*. Gyeonggi: Academy of Korean Studies.
- 고건호 (2005). “천도교, 개신기 종교로서의 자기 인식”. 강돈구 외. 근대성의 형성과 종교지형의 변동 I. 경기: 한국학중앙연구원. (Translated in English) Ko, G. H. (2005). f-Awareness as a Religion in the Protestant Period of Chondoism. Kang, D. G. et al. *Formation of Modernity and Changes in Religious Landscape I*. Gyeonggi: Academy of Korean Studies.
- 김광식 (2000). 근현대불교의 재조명. 서울: 민족사. (Translated in English) Kim, K. S. (2000). *Re-examination of Modern and Contemporary Buddhism in Korea*. Seoul: Dongguk University.
- 김광식 (2011). 만해 한용운 연구. 서울: 동국대학교 출판부. (Translated in English) Kim, K. S. (2011). *Study of Manhae Han Yong-un*. Seoul: Dongguk University.
- 김광식 (2015a). 전인적인 독립운동가 한용운. 서울: 역사공간. (Translated in English) Kim, K. S. (2015a). *Han Yong-un, A Holistic Independence Activist*. Seoul: History Space.
- 김광식 (2015b). 불교 근대화의 이상과 현실. 서울: 선인. (Translated in English) Kim, K. S. (2015b). *The Ideal and Reality of Buddhist Modernization*. Seoul: Sunin.
- 다카하시 도오루 (1929). 이조불교. 동경: 보문관. (Translated in English) Takahashi, T. (1929). *Richo Bukkyo*. Tokyo: Hobunkan.
- 만해축전추진위원회 엮음 (2022). 萬海祝典: 2022 만해축전 학술세미나 자료집. 인제: 만해축전추진위원회. (Translated in English) Manhae Festival Promotion Committee (2022). *2022 Manhae Festival Academic Seminar*. Inje: Manhae Festival Promotion Committee.
- 박명규 (2009). 국민·인민·시민: 개념사로 본 한국의 정치주체. 서울: 소화. (Translated in English) Park, M. G. (2009). *Nation, People, and Citizen: Political Subject as a Concept in Korea*. Seoul: Sohwa.
- 유네스코 (2014). 글로벌시민교육: 21세기 새로운 인재 기르기. 서울: 유네스코아시아태평양국제이해교육원. (Translated in English) UNESCO (2014).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Preparing Learners for the Challenges of the 21st Century*. Seoul: Asia-Pacific Centre of Education for International Understanding under the auspices of UNESCO.

- 윤용복 (2006). “천주교 선교사들의 일제 식민지배에 대한 인식”. 강돈구 외. 근대성의 형성과 종교지형의 변동 II, 경기: 한국학중앙연구원. (Translated in English) Yoon, Y. B. (2006). Catholic Missionaries’ Perception of Japanese Colonial Rule. Kang, D. G. et al. *Formation of Modernity and Changes in Religious Landscape II*. Gyeonggi: Academy of Korean Studies.
- 이상훈 (2005). “구한말 미 개신교 선교사들의 대한 인식”. 강돈구 외. 근대성의 형성과 종교지형의 변동 I. 경기: 한국학중앙연구원. (Translated in English) Lee, S. H. (2005). Perceptions of American Protestant Missionaries in the Late Joseon. Kang, D. G. et al. *Formation of Modernity and Changes in Religious Landscape*. Gyeonggi: Academy of Korean Studies.
- 이선이 (2020). 근대 문화지형과 만해 한용운: 한용운 다시 읽기. 서울: 소명출판. (Translated in English) Lee, S. H. (2020). *Modern Cultural Topography and Manhae Han Yong-un*. Seoul: Somyung Publishing.
- 이용범 (2005). “무속에 대한 근대 한국사회의 부정적 시각”. 강돈구 외. 근대성의 형성과 종교지형의 변동 I. 경기: 한국학중앙연구원. (Translated in English) Lee, Y. B. (2005). Negative View of Korean Society on Shamanism in Modern Era. Kang, D. G. et al. *Formation of Modernity and Changes in Religious Landscape I*. Gyeonggi: Academy of Korean Studies.
- 임부연 (2006). “근대 유교지식인의 종교 담론”. 강돈구 외. 근대성의 형성과 종교지형의 변동 II. 경기: 한국학중앙연구원. (Translated in English) Lim, B. Y. (2006). Religious Discourse of Modern Confucian Intellectuals. Kang, D. G. et al. *Formation of Modernity and Changes in Religious Landscape II*. Gyeonggi: Academy of Korean Studies.
- 한용운(1979), 증보 한용운 전집(1~6). 서울: 신구문화사. (Translated in English) Han, Y. U. (1979). *Complete collections of Han Yong-un*. Seoul: New and Old Culture.